

일반논문

여성선교사의 일지를 통해서 본 개화기 여성주의의 태동배경*

김향숙**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20년대 신여성성의 등장 배경이 되는 1890년대 개화기 여성들이 서구의 근대 사상을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기독교 선교를 목표로 내한한 미국 여선교사의 일지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선교사의 일지는 당대 여성문화의 기록물로서 여성문화와 그 문화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연구내용은 먼저 서양의 가치관을 개화기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여 영향을 끼친 여성선교사의 활동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미국여성선교사의 진도에 쉽게 응한 개화기 여성들의 환경을 진단한다. 연구의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노블일지 1892-1934』를 중심으로, 『조선회상』, 『상투의 나라』, 『아, 대구! 브루엔 선교사의 한국생활 40년』 등 30년 이상 조선에 거주하면서 여선교사가 기록한 이 일지들을 통해 개화기 여성의 근대화 과정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제어: 개화기, 부녀자, 미국 여선교사, 신여성, 일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2A01047770)

**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부교수(khsook@kmu.ac.kr)

© 202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들어가며

근대 한국사에서 여성운동의 태동은 1920년대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을 중심으로 대두되어 박화성, 백신애, 강경애, 김말봉, 최정희, 이선희, 지하련이 활동한 1930년대의 신여성으로 본다.¹⁾ 그러나 이들 신여성의 근대적 여성의식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여성천시풍토가 만연하여 여성이 어떠한 주장도 참여도 수용되기 어려운 남성중심의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들은 문맹, 남존여비, 칠거지악, 남이출산강요, 남녀칠세부동석, 여필종부, 삼종여지도, 일부다처의 축첩 또는 조혼 등 남성중심의 철저한 가부장제사회에서 출입의 자유조차 제한받았던 최대 약자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이 같은 강력한 남성중심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은 신여성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여행객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한 영국여성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²⁾은

-
- 1)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근대 편』(한국여성소설연구회, 1995), 『페미니즘 비평과 한국소설』(송지현, 1996),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조혜정, 1998), 『여성과 역사』(이송희, 2007), 『여성의 문학, 문학의 여성』(조미숙, 2010), 『페미니즘 비평』(송명희, 2012), 『페미니스트 나혜석을 해부하다』(송명희, 2015), 『한국여성학』(김정인, 2016),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고통: 1920~3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과 여성잡지의 젠더정치』(김경연, 2017), 『신여성(新女性), 운명과 선택: 한국 근대 페미니즘 문학 작품선』(백신애 외, 2019) 등에서 한국의 페미니즘이나 여성문학을 논의할 때 출발시점은 1920~1930년이다. 1920년대 신교육을 통해 근대의식의 자각으로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신여성을 여성운동의 출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 책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신여성들을 배출하게 된 토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 2)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지리학자. 영국 왕립 지리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이며 1894년 2월 말 조선에 입국하여 이후 4차례에 걸쳐 11개월간 한반도를 답사하며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 1905)을 발간했다.

“여성 천명 가운데 두 명 정도가 글을 읽을 수 있다... 미신, 남자들의 잘못된 교육, 문맹, 극히 낮은 법적 권리, 그리고 냉혹한 관습은 세계의 어떤 국가보다 더 낮은 지위를 여성에게 안겨주고 있다”(비숍, 1994: 336)고 평가한 바와 같이, 실제 개화기 여성은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외된 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반봉건의 문제를 제시하고 자유연애론을 제기하여 여성해방과 연결시킨 1920년대 ‘제1세대 신여성’의 등장은 가히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1920년대에 이르기 훨씬 이전 세대의 여성들로부터 어떠한 계기를 통해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개화기 초부터 개혁을 주장하며 구국강병의 일환으로 서구의 선진문명을 수용하여 직접적으로 근대화를 주도했던 조선사회의 남성 지식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국강병을 위해 근대화에 발맞추어 기독교를 수용한 남성들의 정치적 또는 사회문화적 근대화의 물결과는 동 떨어진 채, 출입제한 및 교육의 부재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개화기 여성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화기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별도로 서구의 근대 사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되, 이를 최초로 부녀자들에게 전달한 매개체 역할은 구한말 개신교 선교를 위해 미국에서 건너 온 여성교사임에 주목한다.³⁾ 이 같은 미국여성교

3) 조선여성의 근대화를 유도한 계기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즉 구라파나 일본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들과 1920년대 유행했던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여성들이 조선여성의 근대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여성선교사가 설립한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배화여학교, 숭의여학교, 호수돈여학교, 신명여학교 등 근대여학교에서 이른바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신여성이 등장하고 이들에 의해 여성운동이 바야흐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김진송(2004: 206-207)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주입한 여학교들이 서양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전략의 일환이었고 그 결과는 조선사회에서 주체의 격심한 변동을 이끌어냈다고 본다.

사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지금까지 대체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식민주의 입장으로, 여선교사들은 여성교육을 통해 서구의 부르주아적 문화를 조선에 전달함으로써 문화적 식민주의가 조선에 뿌리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둘째, 기독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무지’하고 ‘미개’한 조선 여성을 계몽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다. 셋째, 이들이 조선여성들의 전통적인 문화적 규범에 개입하여 이에 맞설 수 있는 여성의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관점이다(윤정란, 2009: 106). 이처럼 개화기에 내한한 미국 여선교사들은 개신교 선교를 넘어 사회문화적으로도 유의미한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의 활동에 주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먼저, “식민지 초기 여선교사의 교육활동”(이윤미, 2007)은 국내 선교사연합 잡지인 『코리아안 미션 필드』(*The Korean Mission Field, 1905, 1907*)의 기사를 중심으로 식민지 초기 서양여성선교사들의 존재 형태, 교육관 및 여성관, 그리고 구체적 교육활동의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시기 선교사들에 의한 기독교 여성교육이 지닌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선교사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매우 포괄적으로 전개하였고 한국여성들에게 신앙 뿐 아니라 문해력과 자의식 각성 기회를 제공하여 기독교적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19세기 말 조선의 안방을 찾은 미국 여성의 욕망-여선교사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를 중심으로”(윤정란, 2009)는 첫 여성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33년 동안 많은 의료선교활동과 글들을 남긴 릴리어스 언더우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녀가 조선을 찾게 된 배경과 조선에 온 이후의 사회활동을 고찰하고, 그의 의료선교활동과 글들을 통해 그녀가 자신의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였는지를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에 온 서양 여성선교사들(1886년-1955년)의 삶과 사역에 관한 고찰 -미북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미남장로교회와

캐나다장로교회를 중심으로”(이정순, 2012)는 한국장로교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조선 말기부터 한국전쟁 후(1886년-1955년)에 내한한 여성선교사들의 선교사역에 대한 신학적 조명 및 사례연구와 여성선교사들의 사역 평가를 기술하였다. 미 남·북 장로교회와 호주장로교회 소속의 여성선교사 8명을 사례로 들고 있다. 또한 “언더우드가의 여성 선교사들: 릴리어스 언더우드(1851-1921)와 에텔 언더우드(1888-1949)를 중심으로”(한지은, 2015)는 초기 개신교선교의 주역을 담당하였던 언더우드 가문의 고부지간인 두 여성 선교사 릴리어스 언더우드와 에텔 반 언더우드의 삶과 사역을 체계화하여 그들의 성장 배경과 내한 동기를 분석하고, 두 여성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의 특징과 그들이 한국 사회 특히 여성들에게 끼친 영향 등 선교의 성과를 고찰하였다. 특히 류대영(2012)의 “매티 노블(Mattie W. Noble)의 일지: 한 부인 선교사의 삶과 여성의 영역(Women's Sphere)”은 노블부인의 일지에 드러난 내용 가운데 부인 선교사의 삶과 생각을 보여주는 부분을 집중조명하여 선교사로서의 활동보다는 아내, 어머니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부인 선교사의 삶을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당시 부인 선교사가 감내해야 하는 출산과 자녀양육, 질병과 죽음, 가사 및 교제 그리고 손님 치르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위의 연구들은 국내 선교사연합 잡지인 『코리아 미션 필드』의 기사를 토대로 여선교사의 사역을 논의하거나 또는 내한한 여선교사의 활동사례를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분석하거나 특히 여선교사들 중에서도 언더우드부인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였거나 노블부인의 일지에서 부인선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고정적인 성역할을 고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국근대사에서 1920-1930년대의 신여성을 여성운동의 출발로 인식하여 신여성의 출현부터 근대여성사를 논의하였다면 본 연구는 이보다 앞서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훗날 신여성을 배출하게 되는 토양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화기 조선사회 여성들에게 최초로 새로운 근대 여성문화를 전수하여 사고에 영향을 끼친 매개체 역할을 미국 여선교사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 같은 미국 여선교사를 매체로 개화기 여성들이 근대 여성의식을 접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여선교사가 기록한 일지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여선교사의 일지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의 류대영의 연구가 여선교사의 삶을 조명하였음에 비해 본 연구는 여성선교사의 일지를 당대 여성문화의 기록물로서 여성문화와 그 문화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⁴⁾로 간주하여 미국 신여성과 개화기 부녀자들과의 교류와 소통 그리고 변화에 주목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주요텍스트인 노블 부인의 일지는 개화기 여성관련 주제로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화기 초, 미국 여선교사의 주도하에 부녀자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모임과 소통을 통해 처음으로 남녀평등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훗날 여성주의가 대동하도록 연계되는 그 초기과정을 고찰하고자하므로 위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아울러 1920년대 조선사회에서 제1세대 신여성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이 근대여학교 교육을 받고 동경유학을 마친 기독교 가정출신이라는 공통점⁵⁾ 또한 이들 신

4) 여선교사의 일지는 소소한 일상을 포함한 당시의 다양한 생활상 및 동학혁명, 청일전쟁, 한일병합, 3.1운동, 제암리 사건 등 정치적사건을 조선인을 선교하는 입장에서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시대의 친일적 기관지로서 “풍속과 문화의 차원에서 개량해야 할 ‘문제적 조선’의 이미지로 구성하여, 근대 언론의 문화권력의 형성과 영향력을 통해 조선의 식민화에 참여한 『한성신보』나 『제국신문』”의 경우처럼(최기숙, 2014, 2015, 2016) 언론의 역할을 했던 당대발간신문과는 별도의 시각에서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김일엽은 1896년 평남 용강군에서 목사 김용겸과 어머니 이마대의 맏딸로 태어났다. 김명순은 1897년 평안남도 평양군 기독교신도인 갑부 김희경의 딸로 진명여학교와 숙명여고보를 졸업 동경유학 후 작가활동을 하였다. 최초의 여류화가 나혜석 또한 1896년 수원시 수원면 출생으로 명문가 나기정의 차녀이며 기독교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삼일여학교에 입학한다. 삼일여학교는 이화학당의 설립자 스크랜턴이 설립한 기독교여학교이다. 나혜석은 진명여학교 졸업 후 동경유학을 마친

여성의 등장이 이전 세대 어머니들의 기독교 수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1920년대 신여성의 출현에는 복수적인 계기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개화기 부녀자들에게 서양의 근대여성의식을 처음으로 소개한 미국 여선교사의 역할에 한정지어 논의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할 주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근대사의 기록 가운데서 특히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관찰한 매티 윌콕스 노블(Mattie Wilcox Noble)의 『노블일지 1892-1934: 미 여선교사가 목격한 한국근대사 42년간의 기록(*The Journals of Mattie Wilcox Noble 1892-1934*)』(2010)을 중심으로,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의 『상투의 나라(*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1999), 클라라 헤드버그 브루엔(Clara Hedberg Bruen)의 『아! 브루엔 선교사의 한국생활 40년(*40 Years in Korea 1899-1940*)』(2014), 셔우드 홀(Sherwood Hall, M. D)의 『닥터 홀의 조선회상(*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1890-1940*)』(2013)을 참고 자료로 삼는다. 이 일지의 저자들은 1880년대 후반 또는 1890년대 초반부터 30~40여 년 동안 조선에서 거주하면서 무엇보다 동일한 여성의 입장에 서서 개화기 여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였다. 위 일지 열람을 통해 본 연구는 오랜 구습에서 벗어나 훗날 신여성상을 낳게 하는 개화기 여성의 초기 근대화 과정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 기독교학교인 정신여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지냈다. 근대여학교 및 기독교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은 최초의 여성문학자로 1920년대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김미영의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은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과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밝히면서 나혜석의 작품과 삶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김미영, 2004).

2. 개화기 조선으로 건너 온 미국여성들

1890년대 초에 내한하여 42년 동안 개화기에서 일제 말까지 조선사회의 변화를 기록한 매티 윌콕스 노블의 『노블일지 1892-1934: 미 여성교사가 목격한 한국근대사 42년간의 기록』을 국문으로 번역한 강선미는 위 책의 서문에서 당시 여성교사 노블부인이 개화기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 당시 한국의 여성들이 선교사들의 개종권유에 그토록 빠르게 적극적으로 삶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 일과 가사양육을 병행하는 주부로서의 그녀[노블부인]의 일상은 근대 초기한국의 기독교 여성들이 부러워하고 따르려했던 ‘신여성’의 한 전형으로서 1910년대부터 나타나는 한국중산층 여성들의 근대적 ‘현모양처’ 가치관과 사회활동 참여 동기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노블, 2010: 7).

위의 매티 노블개인의 선교업적과는 별도로 보다 광범위하게 개화기 초기에 조선에 건너 온 선교사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 취급한 류대영(2001)은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에서 당시 미국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과 함께 미국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한국사회에 확산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활동과 사례를 들어 밝혔다. 그는 당시 한국으로 건너 온 여성 선교사들이 백인 남성중심의 미국 중산층 구조 속에서 사회적 진출의 기회가 적었던 소외된 계층으로 해외 선교가 그들의 사회활동의 창구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이들의 사회적 가치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빅토리아 가정⁶⁾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미국

6) 가정은 남자들의 세계, 즉 험한 자본주의적 세속적 사회를 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개인적 삶의 중심지로 여성들이 만들고 책임지는 세계였다. 따라서 남자들의

사회의 중요한 자발적 사회봉사기관으로서 기여한 해외선교단체들은 중산층적 가치관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전하고자 하였는데, 해외 선교의 최대 후원 집단이었던 중산층 여성들은 그들의 중산층적 가치와 방법으로 해외선교를 이끌어 갔으므로 이들이 파송한 여성교사들도 동일한 가치관을 소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해외에 파송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편안한 여건'(comfortable circumstances) 속에 살고 있었던 중산층 집안의 자녀들로서 남자의 경우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인 대학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었고, 여성교사의 경우 최소한 고등학교 수준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력이 요구되었다. 이들은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붐을 일으켰던 해외선교를 위한 학생자원운동 SVM(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소속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중산층 젊은이들로서 책임감과 도덕성 등 후기 빅토리아 시대적인 전통가치를 추구하며 열심, 정직, 책임감, 모험심 등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덕목들을 '인격'(character)이라 부르며 가치관으로 받아들였고, 해외선교를 위한 학생자원운동은 이들 젊은이들이 선교사의 길을 가도록 유도했다. 이들의 성장배경은 주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라 복음적인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각 주류 교단이 세운 기독교적 대학의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 '인격'교육을 받았다. 또한 대부분은 집안을 돌보아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우며 부흥회적인 감성신앙을 가진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으며 자기희생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한 모험적인 25세에서 30세 사이의 중산층 젊은이들이었다. 해외 선교부가 선교사업의 능률을 위해 장려한바 남녀를 불문하고 이들 젊은이들은 가능한 한 독신으로 자신의 고향보다 낙후된 선교지를 향해 떠났다(류대영, 2001: 41-61).

비도덕적인 세계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여성들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아름답고 부드러워야 했다(류대영, 2001: 41).

당시 낙후된 불모의 선교지인 조선에 당도한 이들 미국 청년들은 영혼을 구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노력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 때 번창하는 미국 선교사업에 대해 조선황실의 서양 전례관이었던 독일 여성 크뢰벨⁷⁾(Emma Kroebe)은 “개종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교회건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서울에는 수많은 교회건물이 생겨났다”(크뢰벨, 2015: 231)고 평가하면서 “조선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헌신적인 열정을 바치고 있는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에 대해 우리는 높게 평가해야 한다”(크뢰벨, 2015: 232)고 미국 선교사의 업적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또한 한국인들이 “뛰어나게 종교적인” 민족임을 증명해준 결정적인 증거는 만족스러운 선교의 결과(Underwood, 1908: 99)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청년들이 얼마나 당시 열정적으로 선교 사업에 임하였는가를 잘 드러낸다.

이 같이 조선 땅에서의 개신교 선교의 또 다른 점은 남/여선교사들이 1880년대라는 동일한 시기에 동시에 내한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내한한 여선교사들은 의과대학 졸업 후 또는 수련의 과정을 마쳤거나 간호사 또는 교사직의 경력이 있는 대학을 졸업한 1세대 미국 신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카고 여자의과대학(Chicago Woman's Medical College) 졸업과 함께 1888년 미 장로교 선교국에서 최초로 파견한 명성황후의 시의 릴리아스 스티링 호튼(Lillias Sterling Horton)부터, 애니 엘러스 벙커(Annie Ellers Bunker),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7) 엠마 크뢰벨은 1896년부터 조선황실에서 서양 전례 관으로 공식 업무를 수행했던 마리 앙트와네트 손탁의 추천으로 1905년부터 1년간 손탁 대리로 조선황실에서 전례관으로 활동했고 체류기간의 경험을 기록한 건문기 『나는 어떻게 조선황실에 오게 되었나?』(*Wie ich an den Koreanischen Kaiserhof kam*)를 1909년 베를린에서 펴냈다.

Sherwood Hall), 매티 윌콕스 노블(Mattie Wilcox Noble), 앨리스 J. 해먼드(Alice J. Hammond), 마르타 스콧 브루엔(Martha Scott Bruen), 메리 플래처 스크랜튼(Mary Fletcher Scranton), 루이스 C. 로드와일러(Louise C. Rothweiler), M. J. 벵겔(M. J. Bengel), 메타 하워드(Meta Howard), 메리 커틀러(Mary Cutler), 릴리안 해리스(Lilian Harris), 메리 스투어트(Mary Stewart), 아만다 힐먼(Amanda Hillman), 마가렛 J. 에드먼즈(Margaret J. Edmunds), 에스더 쉴즈(Esther Shields) 엘라수 와그너(Ellasue Wagner), 간호사 안나 P. 야곱센(Anna P. Jacobson)와 마리아 L. 체이스(Maria L. Chase) 등등의 미국 신여성들이 1800년대 후반 조선에 당도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일제 말까지 내한했던 고등교육을 받은 북미 출신 여성선교사의 총수는 주부, 전문직을 합해서 최소 566명 내지 990명 정도로 전체 1600명의 선교사 공동체의 58% 내지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전문직 여성 선교사는 전체 북미 출신 해외선교사 집단의 약 32%를 차지하였다. 이는 조선의 사회와 문화발전에 미친 미국개신교 선교사들의 헌신과 공헌에서 여성선교사들의 활동과 역할이 차지했던 비중이 대단히 컸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강선미, 2004: 71).

따라서 개화기에 내한한 미국 여성선교사들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신여성들로서 “여성에게 보여졌던 가장 놀라운 변화의 증거는 대학교육을 받고 대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신여성의 등장”(에반스, 1998: 230)으로 보았던 에반스(Sara Evans)의 언급처럼, 이들 신여성은 그들의 어머니 세대와는 다른 사회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 번창하였던 때⁸⁾ 사회적으로 1865년

8) 1850년대와 1860년대에 설립된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 뉴잉글랜드 여자의과대학, 뉴욕 여자의료대학을 비롯하여 1860년대에 박사대학이 개교하였고 1870년대에는 스미스대학과 웨슬리 대학이, 1890년대에는 레드클리프대학이 문을 열었다. 1860년대 이후 계속하여 서부의 주립단과대학과 종합대학들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다. 공화주의적 모성의 전통 속에서 대학들은 여성의 운명을 성취하도록

과 1890년 사이에 근로여성단체, 여성클럽, 여선교회, 기독교 여성금주연합이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가시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대부분 중산층이었던 이들 신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연대성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젠더의 연대성과 그들의 어머니 세대의 개혁정신에 호소하고 선교회로부터 여성클럽, WCTU(기독교여성금주연합)에 이르는 일단의 여성 우호적 환경 속에서 능력을 다지고 가정성의 이름으로 새로운 공적 주장을 전개하였다. 전문화되어 가는 남성의 세계로부터 배제되었음을 인식한 신여성들은 처음으로 미혼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성을 갖춘 생활방식을 가능하도록 여성 직업을 창출하려고 노력했으나 중산층 여성의 이상은 가정적 여성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적 여성성에 대한 중산층 여성의 이상은 도덕의 수호자이자 도덕의 교육자로서의 자신들의 사명을 확신하였지만, 동시에 모든 여성이 갖추어야 할 적절한 외모와 여성이 받아야 할 대우에 관한 이미지를 형성하였다(에반스, 1998: 239). 따라서 여선교사의 역할은 중산층 여성들에게 사회활동을 통하여 가정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는 측면에서 이전 세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독립적인 여성의 전형이 되었지만,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은 다른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가정적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데 헌신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남성중심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데 사명을 두었다...19세기 말의 대학교육을 받은 모든 여성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결코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여성들보다 늦게 결혼하였으며 자녀를 적게 낳았다. 수년간 혹은 일생동안 독립적인 전문 직업을 가진 이러한 여성들은 새로운 생활방식을 창출하였다. 전통적인 남성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교직과 간호직과 같은 여성전문직으로 몰렸다. 1870년대에 이르면 교사의 수요는 여성교육의 성장을 가속화하였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범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그 상당수가 여자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최초의 간호학교가 병원 안에 세워짐에 따라 교육받은 간호사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에반스, 1998: 225).

이 같은 당시 신여성의 한계는 조선여성의 선교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5년 12월 “한국여성들 사이에서의 사역”(Work among Korean women)이라는 제목의 *Korean Mission Field*에는 부녀자 선교의 목표를 복음전파에 두면서 사회적으로는 “보다 나은 부인과 어머니, 가정주부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밝힌 바에서 잘 드러나듯이, 1907년 12월 “한국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A symposium: the greatest need of Korea's women) 기사에서도 여선교사들이 조선여성의 무지나 미신타파, 재생, 재건과 같은 계몽활동을 하면서 교사나 전도부인과 같은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무엇보다 여성성의 존귀함을 인식시켜(the conception of dignity of womanhood) 가정의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가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를 수용한 부녀자들은 여선교사가 추구하던 빅토리아시대의 기독교적인 현모양처로서의 역할이라는 범주 안에서 가정적 여성성이라는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개화기에 내한한 미국의 신여성들은 그들 어머니 세대의 개혁을 호소하고 기독교 여성단체의 활동에 힘입어 여성 우호적인 환경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1세대 여성으로서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전하는 진취적인 사고의 중산층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는 면모를 갖춘 새로운 유형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빅토리아 후기의 가정적 여성성이라는 가치관을 신봉하는 도덕가 또는 교육자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러한 의의와 한계는 부녀자선교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당시 내한한 미국 여성들은 1880년대 말 해외 선교운동의 부흥기 때 D. L.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자원운동(SMV)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용감하고 진취적인 성향이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가정적 여성성을 신봉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여성들이 ‘기독교 복음전

파'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원하여 '은둔의 왕국'인 조선으로 건너와서 부녀자들에게 그들의 가치관을 전파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조선사회에 건너왔을 당시, 조선의 개화기 사회는 공/사적 영역의 역할분리 문화와 내외법으로 인해 개화기 여성과 남성은 만날 수 없었고 여성들 간의 접촉만 가능했다. 더구나 네비우스(John L. Nevius) 선교정책⁹⁾에 의해 개신교가 부녀자를 선교의 주 대상으로 삼게 됨에 따라 부녀자 선교는 활기를 띠고 동시에 내외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 남/여 선교 영역은 자연스럽게 분리되었다. 즉, 전통적으로 사적영역의 여성공간과 역할에 한정되었던 개화기 여성과의 소통은 남성선교사가 담당할 수 없는 여성선교사의 몫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여성선교사들을 만난 개화 초기의 부녀자들은 그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 기독교적 신앙관에 투철했던 중산층 미국신여성들의 종교, 가치관, 생활 방식은 남성 중심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개화기 부녀자들에게 이전에 접해보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였던 셈이다.

더구나 여선교사들이 내한했을 초기 조선사회는 “외국인들이 사악한 조선인들에게 돈을 주어 어린이들을 훔쳐 의학에 사용하기 위해 심장과 눈을 떼어간다”(언드우드, 1999: 39)라는 어린이 유괴소동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때로, 어린 아기들이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대표단에게 병원에서 잡아먹히고 있으며 병원에서 약이 제조되며 질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은 분명 도살된다는 소문이 낭자했던 때였다. 이질적인 외모와 언어소통의 한계에 더하여 이 같은 외국인 불신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9) 네비우스(John L. Nevius)가 선교를 목적으로 토착교회 설립방법에 대한 권고로서 장로교는 이를 바탕으로 1893년 10대 선교방침을 확정한다. 첫째, 하층민, 부녀자, 청소년을 선교의 주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각 지방에 초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 셋째, 교육받은 교역자를 배출하고 전도자의 교육에 전력을 다한다. 넷째, 모든 문서사업에는 순 한글을 사용한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기석·류방란, 1994: 58).

여성교사들은 조선의 부녀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노블부인의 일지를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미국 여성교사를 만난 개화기 부녀자들

개화기 부녀자들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외국 여성교사들의 외모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다. 호기심을 유발했던 외국인의 외모는 “내 옷을 조사하고.. 모자를 벗겨 써 보기도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펴보고 ..장갑을 끌어내 리기도 했다”(비숍, 1994: 111)거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때문에 파수꾼을 세웠다”(언더우드, 1999: 69) 또는 “외국인여성과 아기를 보는 것이 처음이었기에..구경거리로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때로는 우리가 데려간 개를 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브루언, 2014: 25) 뿐만 아니라 조선 최초의 여자의학교와 맹인학교를 시작한 여의사 로제타 홀도 자신과 백인아기를 구경하러 몰려드는 부인들과 어린이들에게 10명씩 한 조로 한 번에 5분씩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외모가 좋은 선교 도구였다(홀, 2013: 144)고 밝힌 바처럼 신기한 볼거리였다.

그러나 여성교사의 일지에는 여성기독교신자들이 급증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그 이유를 위와 같은 호기심이 발동한 구경거리 때문이라 설명하기 어렵다. 일지에는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여성신도들이 모여 들었다는 것이다. 가령, “장보러 오는 여성들, 그리고 구경하러 오는 여성들이 모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매주 개종자가 생겼다”(브루언, 2014: 70). “사경회에 참석한 여성은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공부도 시작하여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브루언, 2014: 99)고 기록하고 있다. 매티 노블은 1895년 12월 24일에 50명의 여성이(노블, 2010: 65), 1897년 12월 30일 18번째 여성모임에는 100명이(노블, 2010: 91), 1900년

12월 2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400명의 여성이 참석했다(노블, 2010: 111)고 기록하고 있다. 브루언 부인은 1909년 12월 선교보고에 의하면 그 해 3월 여성사경회에 560명이 참석했고(브루언, 2014: 199), 1910년 4월 여성사경회에는 600명이 이상이 출석했으며(브루언, 2014: 220), 심지어 1911년 대구에서 여성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 여성은 220리를 걸어왔다(브루언, 2014: 142)고 기록하고 있으며, 1901년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평안도 북부에는 199명의 여성 세례신자와 588명의 여성예비신자 있으며, 전체 1,200명에 달하는 여성 기독교 신자가 있다”(언더우드, 1999: 270)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선교사의 영향으로 기독교여성신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두드러지는 예로 인천 내리교회를 들 수 있다. 1894년 내리교회는 급증하는 여성신도들로 예배처 문제해결을 위해 온 교인들이 부활절에 건축헌금을 내었고 젊은 여성들은 빨래 등의 허드렛일로 26원의 기금을 모아 1894년 7월 4.5평 규모의 한국최초의 자력여성전용예배당을 1895년 2월 건축했던 것이다(내리교회역사편찬위원회, 2015: 99).

그러면 당시 이처럼 조선 사회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 온 미신 숭배를 버리고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를 수용한 여성 신도의 숫자가 급증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봉하는 종교를 개종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져 개인의 사고의 틀을 통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신도의 급증은 전도자와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가 상호작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설령, 한 쪽이 적절하게 전략을 펴더라도 상대가 수용할 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계획은 뜻대로 성공하기 어렵다. 이는 여성선교사의 전략이 적절했고 또한 조선 부녀자들은 그들의 걸핍된 부분이 충족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여선교사들은 낮에 거리에 남성들만 있고 여성들을 만날 수 없었던 현상을 조선의 남녀 내외문화로 인함임을 먼저 파악했다. 남성 선교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녀자들을 선교대상으로 삼았을

때 당시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 간혀있는 여성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내 목격하게 된다. 아무개 아내 또는 아무개 엄마로 불리며 이름조차 없는 여성들, 매 맞는 아내, 여아 목숨 경시, 술 취해 낭패 부리는 남편, 시부모의 학대와 핍박, 조상제사 모시기에 여념 없거나 귀신들을 기리는 미신에 빠진 여성들, 여성들의 출입제한, 보쌌당하는 과부, 남녀유별로 천대받는 여성들을 일상에서 만나게 된다.¹⁰⁾

우선, 미국 여성선교사들은 효율적인 선교에 대해 고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미국감리교 해외선교회 소속인 의료선교단의 일원으로 1890년에 내한하여 여성병원 보구여관의 2대 의사이자 평양의 광혜여원을 개원하여 여성들을 치료했던 로제타 홀이 효율적인 선교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환자들 외에 나를 구경 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환자들을 다 치료할 때까지 그들을 비켜 서 있게 한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나를 '구경'시킨다. 우리는 아직 전도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오늘 치료가 끝나고 나를 '구경'시킨 다음에 전도를 시작할 생각이다. 전도부터 먼저 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홀, 2013: 160).

가족의 일원이 여성 의료선교사 로제타에게 외과수술이나 약물로 치료를 받아 낮게 되었을 때, 가족 전체가 개종하는 사례도 있지만, 부녀자가 앞서서 개종할 경우, 그녀의 환경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10) 매티 노블의 1893년 10월 10일자 일기에는 남편으로부터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코와 손가락이 잘린 여성을 여성병원에서 입원시켜 매리 커털러 박사가 수술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노블, 2010: 62). 이는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여성이라고 평가하기에 앞서 신체적으로 고통 받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치료부터 받도록 하는 처우로써, 당시 조선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차별성을 띤다. 이 같은 여성 천시 풍토로 인한 여성인권 유린에 대해 노블, 로제타 홀, 릴리어스 언드우드, 클라라 브루언 등 여선교사들은 그들의 일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관찰한 바를 기록하고 있다.

테면 남편은 침을 들여 침과 함께 생활해야한다거나 시어머니는 아들 출산을 못하는 것을 핑계 삼아 며느리를 합부로 대하거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때리는 등 남성중심의 가정문화로 인해 기댈 곳이 없던 부녀자들이 힘든 생활가운데서 위로와 의지할 곳이 필요했음을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잘 드러난다.

이씨의 삶은 무척 힘들었다. 5년 전 전도부인 두 사람이 그녀의 집에 찾아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했다. 교회에 오고 싶었던 그녀는 밤에 몰래 빠져 나와 젊은 여자 친구와 함께 길을 나섰다. 도중에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마주쳤고 어디에 가느냐는 남편의 물음에 그녀가 대답하자 남편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다. 이전에도 그녀는 시어머니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이제 그녀의 생활은 더욱 견디기 어려워졌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기독교 여성이 다시 찾아와 신앙을 가질 것을 권했다. 그녀는 이번에는 교회를 찾아가 예비신도로 이름을 올렸다(노블, 2010: 182).

이씨는 결국 남편의 집에서 벗어나서 친정어머니 집과 교인들의 집을 오가며 바느질로 생계유지를 하며 또한 성경수업을 신청하여 성서학원을 다니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된다. 또한 노블부인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남편과 침의 박해 및 남편의 구타로 견딜 수 없던 술꾼의 한 여성을 소개하고 있다. 그 여성은 보통 때보다 더 심하게 맞은 후 끔찍한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집과 아이들, 남편을 모두 버리고 홀몸으로 도망쳐 나와 전도사 새디에게 피신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노블, 2010: 199). 뿐만 아니라 일지 곳곳에서 남편의 구타, 아내의 손과 발을 묶어 방에 가두어 학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형편에 처한 부녀자들을 먼저 찾아간 노블부인은 “이 사람들은 조그만 친절에도 무척 고마워

한다. 이들은 외국인 선교사가 완벽한 줄로 안다. 자기들에게 개별적으로 조그마한 관심을 보여주면 매우 기뻐한다.”(노블, 2010: 127)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여성천시풍토로 학대받는 부녀자들이 여성선교사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위로에도 감동하여 감사 표시로서 일요일에 예배에 오겠다고 약속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함께 여성선교사들은 여성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부녀자들에게 다가갔던 내용이 일지 곳곳에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 부녀자들을 초대하여 다과를 대접하고 오르간을 연주하며 친교를 나눌 때 초대받은 부녀자들은 생소한 가구와 오르간을 흥미롭게 관찰하는 사례가 일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를테면 노블부인이 크리스마스 날 여성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다과를 대접했을 때 부녀자 50명이 시계가 없어 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풍금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들 대부분은 풍금 소리를 처음 들었고 이를 대단히 좋아했다.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러므로 우리 서로는 형제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과를 나눠주었고, 그 가난한 여성들과 아이들이 이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뿌듯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를 돌보실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곧 이웃사람들을 방문할 작정이며 그들이 나를 자신의 집으로 기꺼이 맞이하리라 확신한다(노블, 2010: 65).

위처럼 초대에 그치지 않고 여성선교사들은 자주 부녀자를 전도하러 나섰다. 초창기에 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전도내용 전달에 제약을 인식하고 한국인 전도부인(Bible Woman)을 적극적으로 양성한 뒤 함께 심방을 다녔다. 『노블일지 1892-1934』에서도 노블부인과 동행했던 여전도사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새디, 김 헬레나, 수산 노, 이 헤스터, 김 에버니아, 손메레, 노 살로메가 있다¹⁾. 이때 전도부인들은 공통적으로 부녀자 선교

에 열성적이어서 부녀자들을 교회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이들은 병자가 있는 가정, 사고를 당하거나 자녀를 잃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녀자들을 여선교사와 함께 방문하여 “나는 노부인에게 딸을 잃은 것에 대해 위로의 말을 건넨 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말해주었다”(노블, 2010: 133). 그리고 이어 교회에 출석하도록 권면했던 것이다.

일지에서 무엇보다도 눈여겨 볼만한 것은 여선교사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부녀자들의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집에서 여성들을 모아 성경훈련 강좌를 하면서 교리와 글자를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집회로 여성 사경회, 어린이 주일학교 및 여아에게 글자 가르치기, 정기적인 여성 주일 공부반과 야간반, 전도부인 배출을 위한 정규반을 지도하는 것 이외에도 여의사나 간호사를 청빙하여 부녀자들을 모은 뒤 위생교육으로 건강 강좌를 개설하는 등 모임을 결성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망인인 여성들의 경우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중등학교를 다니게 지원해 주는 등 여성을 돌보아 주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잦은 교류로써 여선교사는 부녀자의 가정사나 신앙의 상담 및 조언자 역할도 했고 여성들끼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자발적으로 미신을 섬기지 못하게 찾아가 만류하는가 하면 미신을 물리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서로 도와주었다.

이와 같이 여성만의 모임을 통해 여선교사와 부녀자들의 교류와 연대는 여성끼리 고통분담과 유대와 자매애 형성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들이 집 밖의 모임에 참여하고 유대와 결속을 통해 무지를 깨닫고 배움의 의지를 세워 자아인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 일지 곳곳에서 여성들 간의 깊은 유대가 형성됨을 종종 언급하는데, 여성유대(womanhood)는 일종의 자매애

11) 노블부인은 일지에 새디, 김 헬레나, 수산 노, 이 헤스터, 김 에버니아, 손메레, 노 살로메라는 여전도사의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당시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으므로 세례명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sisterhood)이며 급진적 페미니즘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06년 대구 기지 보고서에 의하면 “널 부인과 카메론양이 병든 사람들을 찾아 열심히 심방을 다녔다. 결핍과 고통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들 사이에는 동정심과 깊은 자매간의 정이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다”(브루언, 2014: 69)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매애는 여성이 남성의 부차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떨쳐 버리고 주체적인 존재로 서게 해 주며, 남성들에게 억압당한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들이 대동단결하는 출발점이자 방식을 뜻하는 것이다(한국여성학연구소, 1999: 47). 성경공부나 성경회처럼 여성들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배움과 깨달음, 공감을 통해 여성유대를 가진다는 것은 여성만의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여성교양단체의 목적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여성들의 모임과 유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여성교사의 활동이 낳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1897년 3월 26일자 열여덟 번째 여성 모임에서 노블부인은 이제까지 여성들의 모임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부녀자들이 보인 반응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후에 여성모임을 가졌는데 방안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거의 10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문가에 서 있어야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모인 이들은 대단히 열의를 보였다. 우리 모임은 열여덟 번째를 맞았는데, 생전 이 같은 모임을 들어 본 적도 없던 여성들에게 이는 대단히 경이적인 일이다. 나이든 여성들은 교리를 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글자를 배우느라 애를 썼다(노블, 2010: 91).

위처럼 초기에는 부녀자들이 모여 성경공부를 통해 문맹을 탈출하고 차후에는 성경을 해독하므로 내용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노블부인은 이 같은 성경공부에서 모임을 더 발전시켜 1898년부터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여성들을 위한 성경훈련강좌를 시작했다(노블, 2010: 104).

위와 같이 부녀자들의 기독교 개종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우선, 당시 부녀자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천시풍토로 어려움에 처한 부녀자들은 자신들에게 친절히 다가온 여선교사의 방문과 상담에 위로를 받았고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인간적인 대우와 여성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기독교를 수용하는 부녀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4. 변화의 결과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단 여선교사의 모임에 참석한 부녀자들이 여선교사의 가르침을 듣고 배움을 통해 개종하기에 이르렀지만 여선교사의 태도를 지켜본 뒤 개종하는 사례도 허다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마일 떨어진 어촌마을 행주 전체가 여선교사에게서 감명 받은 신화순의 가르침으로 인해 개종한 경우이다.

신화순은 외국 여성들이 조선의 아픈 가마꾼들을 밤새워 간호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한번은 외국인 여성이 정성을 다해 간호했던 가난한 환자가 죽자 그 시체 위에 엎드려 우는 것을 보았고 “이 외국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 것은 그 종교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을 잊게 만드는 것이며 내가 이제껏 꿈꾸어 보지 못했던 신비하고 거룩한 것이리라. 나도 그것을 가져 봤으면!”하는 생각이 들었다. 행주의 강독 모래 위에서 하루 종일 비웃는 사람들에게 말 씀을 전했다(언더우드, 1999: 217).

1895년 가을 신화순의 가르침을 통해 전도가 시작되어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점차 변화되어 강 주변에서 가장 거칠고 평판이 나쁜 곳으로 알려졌

던 이 마을이 예절 바르고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표본이 되었다고 언더우드부인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노블일지 1892-1934』에서도 수산 노가 선교사업 계획의 방안으로 미국 여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배우러 미국에 가고 싶다는 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미국부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남을 위하는 겸손과 자애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며, 비록 부인들 마다 서로 다른 재능이 있고 어떤 이들은 좀 더 타고난 능력이 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사랑과 친절을 베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 있는 한국, 일본, 중국의 여성들은 모두가 더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그런 사랑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노블, 2010: 212).

위처럼 여선교사들이 조선 부녀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여신도의 수가 증가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여선교사의 일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모임에 참석한 부녀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이다. 남성 중심사회에서 여성들은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지를 깨달고 배움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여성들)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가진 접촉을 통해서 얻은 인상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었다”(언더우드, 1999: 270). 때로는 그들의 열정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여성은 남녀 영역 분리로 설치해 둔 칸막이에 귀를 기울여 남성영역의 강좌 내용을 배우고자 했다.

나의 학급에 참석했던 많은 여인들은 눈물이 글썽이는 얼굴로 ... '나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나는 성경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나는 무식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남성들은 커튼의 다른 쪽에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훌륭하고 놀라운 것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한 여성이 그들 사이에 끼여 앉아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모든 문제에 대해 들었다고 한다(언더우드, 1999: 271).

이같은 부녀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언더우드 부인이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여성들로 꽉 찬 방에서 집회를 열 때도 잘 드러난다. 심지어 밤 10시에 일과를 마친 여성들이 모여 있는 가정에서 방문 요청에 따라 언더부드부인이 가르칠 때에 “지식을 알고자 하는 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같은 딱딱하고 완고한 모습을 내 던졌다”(언더우드, 1999: 282). 또한 여성 사경반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깊은 산속에서 사는 여성들은 호랑이가 지나다니는 외딴 산길을 걸어 매일 밤 모임에 참석했고, 혹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는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밤길을 밝히기 위하여 기다란 소나무 등불을 들고 다닐 만큼 부녀자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강렬했던 것이다.

1909년 5월 12일자 일지에서 노블부인은 당시 농촌지역까지 여성 사경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 70개가 넘는 여성 사경 훈련반을 운영한 에스티양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당시 부녀자들이 열정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이 배운 내용을 3주간 집을 떠나 가르쳐야 하는 농촌 사경반을 자원하였던 것이다.

모임 후 여성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일부는 걸어서, 일부는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 사경반이 열리는 장소까지 이틀이나 사흘을 걸어야 했습니다. 농촌에는 강도들이 득실거렸으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폭행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성들은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았습

니다...작지만 용감한 어머니를 떠나보낸 젊은 두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스스로 밥도 하고 가사일도 하고 자신들의 사업도 돌봐야 합니다. 아내와 아기를 보낸 한 외로운 남성도 집으로 돌아가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남편이나 아들 혹은 부자가 열성적인 어머니, 아내가 시골에 있는 자신들보다 처지가 못한 자매들을 가르치러 나가 있는 한 달 동안 이러한 이중의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노블, 2013: 173-174).

위와 같이 여성의 의무였던 가사를 멈추고 자신보다 열악한 형편의 여성들을 지원하여 가르치기 위해 한 달 간 떠나 있는 일은 이전에 보기 드문 일일 뿐만 아니라 바깥출입조차 제한되었던 당시 풍토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노블일지 곳곳에는 기독교 개종 후에 변화된 부녀자의 가정생활을 소개하고 있다. 가부장제의 극단적인 폐단인 술에 취하여 비이성적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여성들이 먼저 개종한 후 권유로 인해 남편도 개종한 후 변화된 가정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부녀자들이 기독교인 친구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 가정이 평화로워요. 남편이 기독교인이 된 후로는 술을 안 마셔요”(노블, 2010: 131)처럼 가장의 권위를 행사하여 마음대로 술주정하며 군림하여 괴롭던 생활을 청산할 수 있으니 여성들이 남편의 개종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유, 부인.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달라졌어요. 믿지 않은 이들은 참 한심해요. 우리 집 양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노상 술을 마셨고 갖은 잘못을 다 저지르고 다녔고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제는 술도 안마시고 집안 살림도 살피준답니다(노블, 2010: 137).

위처럼 개종 후의 가정의 변화는 영화학당 설립자 존스(G. H Jones)와 부

인선교사 벵겔(M. J Bengel)에게 한 여성이 남편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경우에도 잘 드러난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같은 방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지요. 남편은 사랑채에서 식사를 했고, 나는 부엌 바닥에서 먹었어요. 그는 하인들 사이에서나 쓰는 말투로 내게 말했으며 모욕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일이 흔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술이 취하면 두들겨 패는 것이 일쑤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여염집 아낙네와 마찬가지로 비참했어요... 남편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저를 때리는 일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채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내게 대한 말씨도 친절해졌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날은 참으로 악몽 같았어요. 오늘날에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맛이요... (Gilmore, 1906: 129).

방탕한 노름꾼이 아내를 심하게 때리고 학대하다 교회를 다닌 후부터 놀랍고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례는 종종 볼 수 있다. 남편의 학대와 폭행에서 벗어난 사례에 더하여 1903년 『신학월보』 3권 7호에는 “우리나라에서 드문 일”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신도 여성의 변화를 보도하고 있다.

강화읍내에 사는 어느 여인이 한글을 열심히 배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낱낱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분에 따른 귀천이 없다는 점을 깨달아서, 자기가 부리던 종복(從僕)들을 불러 놓고 마태복음 18장 15-20절을 읽은 후에 그들을 권면하고 종 문서를 불태우며 자유인이 되게 하였다(『신학월보』, 1903: 297-298).

그러나 위와 같은 여성의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선교과정에서 주부로서 여선교사가 감내해 할 고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미혼으로 파견된 여선교사와는 달리 가정을 가진 여선교사들은 가정생활과 전도라는 외부 활

등을 동시에 잘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더구나 돌보아야 하는 자녀가 있는 노블부인의 경우, 어떤 여성이 다른 집들로 방문 가지는 제안을 극구 사양하는 이유를 밝히는 다음에서 잘 드러난다.

집의 아이들이 저녁도 못 먹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 어떤 여자 선교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쓸쓸한 가정을 찾아가 우리 구세주에게 인도해주고 새로운 신도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만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인가(노블, 2010: 126).

이처럼 선교사 부인은 월급을 받았던 독신선교사나 기혼 선교사와는 달리 선교사로서 실제 활동을 했지만 별도로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류대영, 2001: 81). 따라서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인선교사들은 종교적 사명감으로 자발적인 헌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녀자들이 여선교사에게 동조하여 집안에 머무르지 않고 형식적 비형식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외부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갈 만큼 열정과 역량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중심의 구조 때문임이 다음 호머 B. 헐버트(Homer B. Hulbert)의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에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설립한 것을 제외한다면 여학교가 없다. 한국의 여성들은 오직 그들이 결혼하여 꾸미게 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만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은 필연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식이며 그들로 하여금 오직 가정적인 의미에서의 남편의 반려가 되도록 만든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의 위축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의 정신 능력은 아무런 장애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한국의 여성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들의 능력은 다만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들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의 능력도 남

성의 능력과 동등하다는 것을 쉽사리 스스로 입증할 것이다.(헐버트, 1999: 428)

이처럼 가부장제의 남성 뒤에 묻힌 채 겨울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 부녀자들이 여선교사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선교사의 지도를 받은 여성들은 여성해방의 첫 걸음으로서 여성에게 강요된 거추장스러운 쓰개를 제거한 일에 동참하는 변화도 일어났다. 1908년부터 정식으로 장옷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다(정신여자 중·고등학교, 1962: 136).

여선교사의 일차적인 목표는 포교에 두었지만 위에서 보여준 바대로 초기 선교과정에서 선교 외에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부차적인 활동이 매우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선교사가 만든 커뮤니티를 통해 부녀자들은 집밖에서 여성만의 교류와 연대를 형성하여 문자를 해독하거나 세례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성경책에서 알려주는 남녀의 동등과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등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여선교사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부녀자들에게 포교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서구 문명의 유입과 더불어 시작된 한국의 초기 근대화 과정의 중심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있다. 남성과는 달리 고립된 부녀자들에게 1차적인 서구의 근대문명은 이질적인 외모의 서양 여성이 선보인 생활용품과 종교 및 가치관이었을 것이다. 남선교사와 동일한 시기에 내한한 미국여선교사들은 조선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근대적 여성 문화구성에 개입하

는 주요한 사회문화적 요인”, “또 다른 유형의 근대적 여성상을 구현했던 여성 집단”(강선미, 2004: 66-67)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미국 신여성의 가치와 여성문화를 조선여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기존에 없는 신세계였고 필요한 가치의 전달자였다. 따라서 미국 중산층의 가정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남녀 간의 자유로운 연애와 사랑을 전제로 한 결혼, 아내와 남편으로서 일부일처의 동등한 가정생활, 직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부녀자들에게 전파했고 이를 추구하도록 영향을 끼쳤다. 이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 있던 부녀자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초로 작용하여 가부장적 질서를 깨달고 이를 이반하려는 조선여성들의 열망을 견인하는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부녀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영향이 바로 우리 여성들을 각성하게 하여 배움의 가치를 깨달게 했고 자신의 딸들을 조선 최초로 설립한 근대교육 기관에 입학하게 했고 신여성을 배출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일찍이 조성되 지 않았더라면 갑작스레 신여성은 등장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신여성의 등장을 유도한 복수적 계기 중에는 조선사회의 문호개방으로 구라파나 일본 등지에서 유학을 마친 여성들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나 당시 여성의 유학은 일부 특수계층 가정의 딸들에게 한정적이었으므로 그들이 영향을 끼칠 범위가 넓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개신교 선교에 목표를 둔 여선교사는 일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여성사경회에 모인 부녀자들의 숫자가 400명, 600명, 1200명 등 많은 수가 집계되었고, 이는 일반 대중의 부녀자들을 선교의 주 대상으로 삼았던 여선교사의 활동이 보다 폭넓고도 다양한 계층과 많은 수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1920년대 ‘신여성’을 배출하도록 만든 초기의 토양은 이보다 훨씬 앞서 이들 미국 여선교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이를

수용한 조선부녀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리한 주장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처음으로 여성공동체를 만들어 조선의 부녀자들로 하여금 집 밖에서 여성 공동체를 경험하게 했다. 공동체로서 한 공간에 집결한 부녀자들은 성경공부를 통해 문맹을 깨고 무지를 깨달아 배움에 열성을 더 했고 미신신봉과 같은 구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열망했다. 따라서 초기 미 여성교사를 만난 부녀자들은 규모가 크고 작은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인 교육으로부터 근대 여성학교 교육, 여성 환자 의료 및 사회복지 사업을 이끌었던 미국 여성교사의 영향을 그들의 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여성교사의 활동 못지않게 개신교 여신도들이 급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여성이 당면한 유교전통의 철저한 가부장제라는 사회문화적인 특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녀자들은 여성 친시 풍토 가운데 여성교사로부터 인간적 관심과 공감과 위로를 받았던 것이다. 또한 여성만의 공간과 모임인 교회는 확대받는 여성들의 탈출구 기능을 했다. 이는 정숙과 인내를 미덕으로 여겼던 부녀자들이 고작 빨래터나 다듬이 방망이질로 해소되지 않은 한 맺힌 정서에서 탈피했던 방법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모임은 곧 성경공부반과 훈련반 그리고 사경회의 활성화로 이어졌으며 수 백 명씩 모이는 집회로 커져 여성신도 수를 급증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 개화기 미국 선교사의 공과 실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하더라도 소외계층의 최대약자라 할 수 있었던 개화기 여성을 위한 여성교사의 기여에 대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받은 미국의 중산층 신여성이 안락한 고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낙후된 낯선 타국을 자원할 때는 실로 큰 신념과 용기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혼여성이 홀로 밴쿠버에서 14일 동안 배를 타고 요코하마를 거쳐 약 20일 만에 부산에 당도하여 풍토병과 죽음을 불사하고 도외시 되었던 부녀자들의 선교에 열중

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여성에게 부과된 제약에 도전하는 본을 보여준 셈이다. 어쩌면 그들이 선교 대상으로 조선을 지목했다는 것 자체가 유교적 전통하의 여성들이 눈을 뜰 수 있는 행운의 기회나 다름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정치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개화기 사회의 조선 여성들을 위해 바친 행적은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할 일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재평가하는 작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미(2004), “근대초기 조선과전 여선교사의 페미니즘”, 『신학사상』, 제 125권, 65-91쪽.
- 김기석·류방관(1994), 『한국근대교육의 기원, 1880-1895』, 서울: 한국교육사고
- 김경연(2017),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1920-30년대 여성 문학의 형성과 여성잡지의 젠더 정치』, 서울: 소명출판.
- 김미영(2004),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21권, 67-96쪽.
- 김진송(2004),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땀스 흘을 許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 김정인(2016), “한국근대여성사 연구의 변화추이와 전망”, 『한국여성학』, 제 32권, 185-215쪽.
- 내리교회역사편찬위원회(2015), 『내리선교 130년 역사화보집』, 인천: 내리교회 역사편찬위원회.
- 노블, 매티 윌콕스(2010), 『노블일지 1892-1934: 미 여선교사가 목격한 한국 근대사 42년간의 기록』, 강선미·이양준 옮김, 서울: 이마고, Noble, Mattie Wilcox(1933), *The Journals of Mattie Wilcox Noble 1892-1934*, Tokyo : Kyobunkwan.

- 류대영(2001),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1884-1910)』,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_____(2012), “매티 노블(Mattie W. Noble)의 일지: 한 부인 선교사의 삶과 여성의 영역(Women’s Sphere)”, 『동방학지』, 제160권, 211-253쪽.
- 백신애 외(2019), 『신여성(新女性)운명과 선택 : 한국 근대 페미니즘 문학작품선』, 고양: 에오스.
- 브루언, 클라라(2014), 『아, 대구! 브루언 선교사의 한국생활 40년』, 김중순 역, 대구: 평화당 출판사, Bruen, Clara Hedberg.(1911), *40 years in Korea I*,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 비숍, 버드 이사벨(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인화 옮김, 서울: 살림, Bishop, Bird Isabella(1898), *KOREA Her and Neighbours*, New York: Fleming H, Revell.
- 송명희(2012), 『페미니즘 비평』,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2015), 『페미니스트 나혜석을 해부하다』, 서울: 지식과 교양.
- 송지현(1996), 『페미니즘 비평과 한국소설』, 서울: 국학자료원.
- 언더우드, 릴리어스(1999), 『상투의 나라』, 신복룡옮김, 서울: 집문당, Underwood H, Lillias(1904),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 에반스, 사라(1998),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여성의 역사』, 조지형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Evans, Sara M.(1989), *Born for Liberty: A History of Women in America*, New York: Simon & Schuster.
- 윤정란(2009), “19세기 말 조선의 안방을 찾은 미국 여성의 욕망-여선교사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를 중심으로”, 『사립』, 제34호, 105-134쪽.
- 이송희(2007), “한국근대여성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여성과 역사』, 제6권, 51-102쪽.
- 이윤미(2007), “식민지 초기 여선교사의 교육활동” 『한국교육사학』, 제29권 2호, 87-118쪽.

이정순(2012), “한국에 온 서양 여성선교사들(1886년~1955년)의 삶과 사역에 관한 고찰-미 북 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미 남 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정신 중·고등학교(1962), 『정신75년사』, 서울: 계문출판사.

정신 중·고등학교(1962), 『정신 75년사』, 서울: 계문출판사.

조미숙(2010), 『여성의 문학, 문학의 여성』, 파주: 한국학술정보.

조혜정(1998),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최기숙(2014), “‘사건화’된 일상과 ‘활자화’된 근대: 근대초기 결혼과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한성신보』(1895-1905) ‘잡보’란이 조명한 근대초기의 결혼생활 스케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9권, 231-285쪽.

_____ (2015), “계몽의 이면, 무서와 혐오의 감성정치-『한성신보』(1895-1904) 잡보란을 통해 본 ‘조선’의 표상화 맥락과 감정수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1권, 5-45쪽.

_____ (2016), “‘계몽의 역설’과 ‘서사적 근대’의 층성-『제국신문』(1898.8.10-1909.2.28) ‘논설, 소설, 잡보, 광고, (고)소설’을 경유하여”, 『고소설연구』, 제42권, 279-331쪽.

크뢰벨, 엠마(2015), 『나는 어떻게 조선황실에 오게 되었나?』, 김영자 옮김, 민속원, Kroebel, Emma(1910), *Wie ich an den Koreanischen Kaiserhof kam*, Herzlicher Dankbarkeit gewidmet.

한국여성소설연구회(1995),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근대 편』, 서울: 한길사.

한국여성학연구소(1999), 『새 여성학 강의』, 서울: 동녘.

한지은(2015), “언더우드가의 여성 선교사들: 릴리어스 언더우드(1851-1921)와 에텔 언더우드(1888-1949)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60권, 361-396쪽.

홀, 셔우드(2013), 『닥터 홀의 조선회상』, 김동열옮김, 좋은 씨앗, Hall, Sherwood (1897),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New York: Eaton & Mains.

홀버트, 호머(1999), 『대한제국 멸망사』, 신복룡옮김, 서울: 집문당, Hulbert, Homer B.(1906), *The Passing of Korea*, London: William Heinemann Co.,

Gilmore G, William(1906), *Korea from its Capital : with a Chapter on Mission*, New York: Doubleday, Page&Company.

The Korea Mission Field (1905), December, "Work among Korean Women", pp.33-35.

_____ (1907), December, "A Symposium: the Greatest Need of Korea's Women", pp. 177-178.

Underwood, Horace G.(1908),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 New York: Fleming H, Revell.

〈신문기사·잡지〉

『신학월보』(1903), 제3권 7호, "우리나라에서 드문 일", 297-298쪽.

(논문 투고일: 2021.04.30, 심사 확정일: 2021.06.23, 게재 확정일: 2021.06.27)

〈Abstract〉

Birth of Feminism Revealed in the Journals of Female Missionaries in the Late *Chosen* Dynasty

Kim, Hyang Sook*

This study traces back to the 1890s, which is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New Women' in the 1920s and focuses on how Korean women came into direct or indirect contact with Western modern thought. To this end, journals recorded by American women missionaries who came to Korea for Christian missions in the late Chosen Dynasty are examined. These journals, which record the daily life experienced by the American missionaries, provide a record of contemporary women's culture and offer an important clue to understanding women's culture and its changes. The research content first discusses the activities of female missionaries who introduced Western values to women in the late Chosen Dynasty. Next, the circumstances of women who responded to the evangelism of American women missionaries are diagnosed. The study focuses on a number of sources, including *The Journals of Mattie Wilcox Noble 1892-1934*,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1890-1940*,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and *40 years in Korea 1899-1940*, and aims to identify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women in the late Chosen Dynasty through these journals recorded by female missionaries who lived in Chosen for more than 30 years.

Key words: late Chosen dynasty, women, American female missionary, new women, journalism

* Associate Professor, Tabula Rasa College, Keimyung University

